

1. 서 론

韓·中共의 產業 및 貿易 交流 方案

李 鍾 勳

中央大 産業大學長/経済学博士
/韓·日経商学会 会長

本稿는 지난 5월17일, 본회 및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개최한 바 있는

「中共 電子産業의 浮上과 電子業界의 対応戰略」
세미나에서 발표된 中央大

이 종훈 박사의 강연 내용을 原文에서
옮긴 것이다. 시기적으로 중공시장에 대한
진출 봄과 더불어 양국의 협력 무드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동세미나의 Denis F. Simon
박사와 Sidney Rittenberg 사장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공의 대한반도정책과 한
국의 대중공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중공은 종
래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소극적인 실리추구 외교정
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도 경제 및 문화·스포
츠 교류의 이유 때문에 대중공 화해분위기를 조성
하여 왔다.

이같이 한·중공간의 관계가 과거의 소극적, 간접
적 관계에서 적극적, 직접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
며, 앞으로도 더욱 양국의 관계가 호전되리라는 전
망의 이유를 중공측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유이다. 중공은 「生産請負制」
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농산물
과 석탄, 석유 등의 시장으로 한국을 고려할 수 있
다. 특히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자본,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기술, 자본,
개발경험이 부족한 중공측으로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자국의 현대화계획 추진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이유이다. 중공은 「2000년대 사회
주의 대국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
변정세를 안정시키면서 21세기에 중공경제를 환태
평양경제권의 중심지로 부흥시키려는 비전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한·중공간의 관계개선은 역사적으
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2. 중공 경제개혁의 배경과 특성

중공 경제개혁의 배경은 중공내부의 정치권력과
경제정책측면에서 본 대내적 배경과 국제정세의 대
외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976년의 중공
경제는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매우 침체되어 있었고
국민의 불만은 극히 고조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민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 체제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한·중간의 관계개선은 정치적·경제적·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위해서 등소평은 종래의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에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경제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공 경제개혁의 대외적 배경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1969년의 중·소 국경분쟁으로 안보상의 위협을 느낀 중공이 소련의 무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둘째, 미·일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세째, 소련, 유고, 헝가리 등이 그들의 체제내에 시장경제원리와 이윤제도를 가미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중공의 주변국가인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등이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하게 되자 중공도 경제개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중공 경제개혁의 특징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모택동시대에는 정치가 주가 되고 경제가 종이 되는 「경제의 정치화」라는 혁명적 체제가 특색을 이루어 온 반면에 등소평체제 이후에는 경제가 주가 되고 정치가 종이 되는 「정치의 경제화」가 주요 지도이념이 되고 있다.

둘째, 이전의 경제개혁의 특색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체제내적 동질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경제개혁의 특색은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시키게 될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의 체제내적 또는 체제외적 이질변화의 성격을 띠

고 있다.

세째, 경제적 모순의 극복전략이 자력갱생이라는 원칙 하에서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대내지향적 방식으로부터 대외협력원칙하의 개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대외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네째, 선진자본주의의 경제개혁이 과잉생산하에서의 소비중시경제와 과잉시설하에서의 생산중시경제라는 과잉과 풍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공식 경제개혁은 과소시설하에서의 생산중시경제와 과소생산하에서의 소비경제중시라는 과소와 부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도국의 근대화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자본주의화하는 것임에 반하여 중공의 근대화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자본주의화하는 것이다.

3. 중공의 부문별 경제개혁 현황

중공의 경제개혁은 먼저 농촌인구가 많은 특수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농촌의 생산력증대→도시경제의 활성화→전체경제부문의 효율성제고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즉 인민공사의 폐지, 「生産請負制」의 도입, 농산물수매가격의 인상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 후에 기업에의 자주권부여, 부분적인 시장기능의 도입, 기존기업의 정리·개편 등을 통하여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국기술의 도입, 외국기업

의 투자유인, 대외무역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전 체 경제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1) 농업부문의 개혁과 성과

중공이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개발국으로 머물렀던 가장 큰 원인은 1984년 현재 중 공인구의 68.1%가 농촌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소평체제이후 이루어 놓은 경제개혁 중 농업부문에서는 탈집단화정책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생산청부제」이다. 생산청부제 농업방식은 人民公社, 生産大隊, 生產隊의 3급소유제에 의한 집단 농장에서 농토를 각 농민에게 할당하여 경작하게 한 후, 생산된 농작물을 정부가 공정가격으로 구입하고 초과생산분은 자유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이윤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 혁신적인 영농방식이다.

이같은 농업부문의 성과는 농민소득을 향상시켜 내구소비재,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시장잠재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한편, 도시경제체계개혁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경공업부문에 많은 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업발전의 밀받침이 되고 있다.

(2) 기업부문의 개혁과 성과

과거 중공의 공업체제는 중앙집단식 계획경제제 도였고 기업관리제도도였고 기업관리제도는 「三結合」(노동자, 간부, 기술자대표) 방식에 의해 조직된 「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행정기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하부체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중공은 1979년 9월에 「국영기업경영관리 자주권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일부기업에 자주권을 부여하였고, 1981년부터는 「경제책임제」라 불리우는 본격적인 기업개혁에 착수하였다. 「경제책임제」는 농업부문의 「생산청부제」와 유사한 것으로 그 골자는 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생산목표를 달성하면 계획된 이윤을 납부한 후 초과생산에 의

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기업내 유보시키는 제도이다.

이같은 기업의 자유권확대로 인하여 생산과 이윤이 증가한 결과 도시인구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확대와 기업의 투자활동 증가에 따르는 기계 등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시장부문의 개혁과 성과

중공은 종전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적인 형태인 「계획적 상품경제원리」라는 경제관리방식을 개발하였다. 종래의 계획경제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경영자, 노동자 등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배치함은 물론 제품의 종류, 생산량, 원자재의 공급, 제품의 배분, 가격 등을 모두 국가의 계획에 의거 결정하여 웠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기업의 손익책임을 전부 부담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윤은 모두 국고에 귀속시켜 왔다. 그 결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계획과 제품가격이 시장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은 손익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주의가 만연되어 노동의욕과 생산성이 극히 저조하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공은 「계획적 상품경제」를 도입하였다. 상품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격체계와 유통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혁하였다. 먼저 가격체계의 개혁을 살펴보면 ① 국가가 가지고 있던 가격관리권한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적절히 하향위임하였다. ② 단일가격체제를 복수가격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중공의 가격체계는 1979년 까지 「국가규정가격」만을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浮動가격, 협의가격, 자유시장가격 등을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공은 유통체제의 불비로 인하여 생산지와 소비지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생산지에는 재고가 쌓이고 소비지에서는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공은 1983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통체계개혁에 착수하였다. 농촌지역의 말단 유통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상품매입과 소매를 인정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의 유통체계도 정비하여 「국영상업」과 「집단경영상업」외에 개인소유제상업도 허용

하였다.

(4) 대외부문의 개혁과 성과

중공은 자본 및 기술도입정책을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함에 따라 1979년 4월 외자도입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에는 외국기업의 중공내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中外合资經營企業法」을 제정하여 공포한데 이어 1980년 8월에는 광동성의 深圳, 珠海, 汕頭를 경제특구로 승인하였다.

중공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자본주의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경제특구를 설치한 이유는 ① 외국자본의 유치를 촉진하여 선진기술, 장비, 경영기법 등을 유입케 하며 ② 특구내의 제품수출로 외환보유고를 증대시키고, ③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조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15%(여타 지역은 33%)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기간도 업종에 따라 2~6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은 다른 아시아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업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금수준은 한국의 약 1/5, 일본의 1/15, 홍콩의 1/3수준에 불과하며 외환사용도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해 주고 있다.

한편 중공은 1979년부터 무역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지금까지 对外 貿易專業總司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오던 무역업무를 지방, 부문, 기업 등에 점진적으로 분산, 이양함과 동시에 생산과 판매, 수출입, 공업과 무역 등을 상호연계시키는 다양한 경영방식을 도입하였다.

4. 중공의 경제제도 및 정책

(1) 중공의 합영·합작제도 및 정책

중공은 1983년 9월 국무원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합영기업의 설립이 인정되는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다.

- ① 에너지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 ② 기계제조공업, 기기·계기공업, 해양석유 채굴 설비의 제조업

③ 전자공업, 계산기공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④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 의료용 기기공업, 포장공업

⑤ 농업, 목축업, 양식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이다.

한편 합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합영기업의 설립신청서 ② 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업화조사 보고서 ③ 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약정계약 및 정관 ④ 각 당사자가 지명한 회장, 부회장, 중역의 명부 ⑤ 중공측의 기업주관부서 및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정부가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언급한 의견 등이다.

그리고 합영기업의 출자방식은 화폐로 출자해도 좋고 공장건물,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노하우, 토지사용권 등을 평가해서 출자할 수도 있는데 외국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나 기타의 물자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합영기업의 생산에 불가결한 것, ② 중공에서 생산할 수 없든가 기술성능 및 공급시기에 있어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③ 평가는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물자의 그 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해서는 안된다.

(2) 중공의 경제특구제도

중공은 1980년 8월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 중국화교의 회사 및 기업(客商)들이 경제특구에 투자하여 단독으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중공과 합작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기업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도록 장려하며 아울러 그 자산 취득이 윤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특구내기업에 대한 특혜대우는 다음과 같다. 특구내의 토지는 중공의 소유이나 기업의 업종 및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 임대료 및 납부방법 등의 면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다. 또한 특구내의 기업이 수입하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부속품, 원자재, 수송차량 및 기타의 생산자재는 수입세가 면세되며, 객상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수입세가 전부 또는 일부 부과되거나 면제 된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객상은 합법적

인 이윤과 외국雇人の 정상적인 소득은 중국은행이나 특구내의 다른 은행을 통해서 중공으로부터 송금할 수 있다.

(3) 중공의 외환관리제도 및 정책

중공은 1983년 7월 「화교자본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외환관리 시행세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세칙에 의하면 중국은행 혹은 국가외환관리총국 또는 그 분국이 승인한 기타 은행에 외국기업은 중공화폐의 예금계정 및 외국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개설은행이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5. 한·중공 무역협력의 가능성

(1) 중공의 수출입구조

먼저 중공의 수출입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공의 수출구조는 식료품, 공업용원료, 광물연료 등의 1차산품이 '84년, '85년의 경우 각각 45.6%,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제품의 경우는 각각 54.4%, 49.3%를 나타내고 있다. 1차산품 중에서는 석탄, 석유 등의 광물연료가 전체 수출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제품 중에서는 경공업제품이 전체 수출액중에서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공의 수입구조를 보면 1차산품이 '84년, '85년의 경우 각각 18.6%, 12.4%인데 비하여 공업제품은 각각 81.2%, 8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업제품 중에서 중공업제품이 '84년, '85년의 경우 각각 51.2%, 63.1%에 달해 수입액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중공의 무역구조는 1차산품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중공업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한·중공간 무역협력의 방향

한·중공간의 무역관계는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의 공업제품과 중공의 1차산품을 교환함으로써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경공업제품 특히 섬유제품분야에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의 보완 및 협력관계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공업과 중공의 농업 및 광업간의 산업간수직적 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무역의 증대, 둘째, 한국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제품과 중공의 노동집약적 제품간의 산업내 수평적 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무역의 증대, 세째, 한국의 가공형공업과 중공의 소재형공업간의 가공도에 따른 수평적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무역의 증대 등을 통한 한·중공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6. 한·중공기술력 및 직접투자의 가능성

(1) 한·중공간 기술이전의 가능성

한국과 같은 중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 경화기에 접어든 기술을 도입·소화하여 신제품 및 공정기술을 개발한 후 후진국시장에 수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같이 개발된 기술은 후진국의 기술부존도나 요소부존도 등에 적합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기술의 비경제성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중간기술로서의 우위성을 가지고 수출될 수 있다. 즉, 선진국기술은 상대적으로 노동을 덜 쓰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직도입함으로써 후진국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오히려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의류, 봉제완구류, 혁제품류 등의 경공업제품 관련기술과 전자제품, 기계제품관련기술의 대중공기술이전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공도 80년에 들어와서 특허법, 상표법 등을 제정하여 대외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중공기술이전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2) 한·중공간 직접투자의 가능성

현단계에서 대중공 직접투자는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중공측의 풍부한 노동력, 공업원료, 천연자원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는 한·중공간의 직접투자는 가능성이 크다. 현재 EC역내 국가들이 상호간에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의 직접투자를 실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중공도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 개시를 경제특구로, 또 다른 14개시를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투자전략은 이윤기회가 가장 큰 반면에 현지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외국재산의 몰수, 국유화조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경제협력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에 선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3국과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출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7. 중공의 대한국경제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념적 대립의 동서냉전시대가 사라지지 않나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보게 되었다. 그 기대는 황해를 마주보고 있는 한-중공 간에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전망을 짚게하고 있다.

물론 한·중공관계는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파생되고 있는 「이념적 不可観」의 장벽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값싼 양질의 원료와 노동력 그리고 방대한 제품판매시장이 필요하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중공에게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보완관계로서의 접근 가능성성이 크다. 특히 중공은 시장경제의 논리까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접근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공은 하버드대학의 燕京研究所(Yenching Institute)과 東岬研究所(Fairbank Center)에서 미국을; 동경대학과 아세아경제연구소에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창을 통해 한국경제도 깊이 분석하고 있다. 중공의 사회과학원과 국무원은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국책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미·일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모델을 찾고 있다.

중공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공의 한국연구 속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를 확인함으로써 최근의 관심사인 한·중공 경제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공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단행본「남조선경제개발전략화 발전계획」이 길림대학의 張世和 교수에 의해 출판됨으로써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에서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나온 이 책은 장교수가 지적한대로 중공 12억 인구에게 읽혀질 최초의 한국경제에 관한 교과서인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책을 출판하는 목적이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데 있으며 「한국발전경제」의 경험과 교훈을 탐색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과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공은 한국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 중공경제의 현대화 모델로서 우리의 개방경제체제와 고도성장전략(高速增長) 그리고 그 정책수단으로서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 수용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 중에서도 ① 대외개방형 경제 개발전략, ② 주요경제개발정책, ③ 대외무역의 발전과 特點, ④ 수출장려정책, ⑤ 경제개발 5개년계획, 그리고 부록으로서 ① 외자도입법(引進法), ② 해외건설촉진법, ③ 경제기획원 조직 기구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대외개방형경제개발전략의 연구에 있어서 그는 먼저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으로서 자원부족, 협소한 국토, 높은 인구밀도, 강한 교육열에 의한 고급 인력 등을 지적하였고 국제경제환경으로서는 저렴한 국제원자재와 협력자금 그리고 선진국의 풍부한 상품수요와 높은 과학기술 등을 강조하였다. 주요경제개발정책의 분석에 있어서는 ① 외자와 선진기술의 도입, ② 노동밀집형 경방공업(勞動密集型 輪紡工業) 및 수출확대, ③ 수출상품기지 건립, ④ 해외건설과 노무수출, ⑤ 대외무역조직기구의 완비, ⑥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 등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출장려책의 연구에 있어서는 수출장려를 위한 무역정책, 금융, 세제, 외환제도에서의 수출장려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출장려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출장려정책이 한국의 공

업화와 직접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함으로써 '60년대(제 1, 2 차)의 경우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으로 근대화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70년대(제 3, 4 차)의 경우 식량자급과 중화학공업화를 통하여 위기 속에서도 고도성장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80년대(제 5 차)의 경우 물가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수지의 흑자를 실현하는 등 3 단계의 개발노정을 거쳐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전경제」는 고도성장 속에서도 ①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② 국민경제 각 부문간의 불균형(농공간, 수출공업과 내수공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확대, ③ 각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이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루함으로써 선진국의 모습으로 도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개방과 수출증대, 그리고 개발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데 있었다고 한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경제의 발전배경에는 자립경제를 위한 수입대체 산업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교육수준의 인력이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술혁명에 의한 선진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풍부한 상품시장과 저렴한 자본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외채에 의한 대외개방 경제전략을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주요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외채원자체, 그리고 도입기술을 잘 배합하여 노동밀집형 가공수출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그 계획과 진행에 있어서 부총리를 겸한 경제기획원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책운영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통령직속의 청와대비서실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역할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그들의 사회주의 경제의 중앙집권적

인 계획경제성의 장점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논리의 의도성도 엿보였다.

이와 같이 중공은 우리의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정책자체보다는 오히려 외자와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가공수출하는 식의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를 더 모방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교수가 한국경제의 연구에서 내린 결론에 의하면 중공의 경제는 동부의 萬里나 되는 연해지구의 대외개방경제화를 통하여 공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서부의 자립적 내향경제를 확립하여 이를 상호조화 시킬 수 있는 경제체제의 변혁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공은 사회주의 경제의 현대화를 서두르기 위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체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대외 개방적 시장경제와 수출우선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중공의 우리에 대한 시각이 체제수정까지도 감수하는 이념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입장이라는 데 한·중공 경제협력의 논리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양국간의 산업 및 무역 구조의 상호보완성이 그 실현성을 크게 하고 있다. 한편 중공의 한국연구가 우리의 중공연구보다 더 열성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공의 경제무역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무역연구소는 한·중공이 국제정세와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비협정 민간교역의 조건이 성숙되어 큰 불편 없이 거래관계를 갖고 있으나 일부 상품과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중국과 남조선의 무역경쟁」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여 주목되고 있다.

중공의 한국경제에 관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공 무역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은 중공과 간접교역방식을 통하여 쌍방의 교류폭을 넓힌 뒤 직접교역으로 발전시켜 민간무역협정 또는 정부간 무역협정의 체결 등 정치관계로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중공교역 가능성」에 관해서는 한국의 대중공 시장진출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중공에서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등의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상호보완관계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물

론 한국은 중공을 그들의 중화학공업수출을 위한 방대한 시장으로 만들려는 몽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도 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중공양국 경제와 무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양국의 주요수출 시장이 비슷하다. ② 주요경쟁제품은 경공업제품이다. ③ 한국은 선진국에서 중공은 후진국에서 경쟁력이 강하다. ④ 한국은 기술, 품질, 판매 등 비가격경쟁력에서 중공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하다. ⑤ 한국은 중화학공업제품에서 중공은 제1차산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공의 공업화(특히 기술제품)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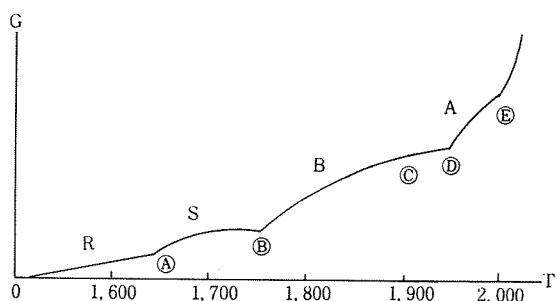
특히 중공은 국제경제 및 무역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이 우리(중공)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은 우리의 개방정책에 따른 대한경제위협에 유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에서의 한·중공간 우위와 열세비교」에서는 한국은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시켜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컬러TV 등을 미국 등에 대량 수출하고 있으나 중공은 이 분야에서 크게 뒤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한 반면 「경제제일주의의 시대착오」(주로 도시·환경문제와 복지문제)를 범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거울삼아 중공은 경제발전과 어울리는 교육·문화의 발전을 아울러 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한·중공무역협력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고 있다. ① 한국의 대중공수출유망품목, ②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하고 중공의 수요가 큰 것 = 선박, 화학비료, 화섬사, 인조섬유직물, ③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하고 중공의 수입증가가 가능한 것 = TV, 통신기체, 타이어, 합판 등, ④ 한국의 수출증가가 가능하며 중공의 수입수요도 비교적 큰 것 = 철강제품, 동판 등 ⑤ 중공의 대한수출유망품목, ⑥ 한국의 수입수요가 크고 중공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것 = 원유, 동물성잡제품원료 등, ⑦ 중공의 수출경쟁력이 강하고 한국의 수입증가가 가능한 것 = 대마 등 일부농산물, 비철금속 등, ⑧ 중공의 수출증가가 가능하고 한국

의 수입증가가 가능한 것 = 유기화학제품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산업·무역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공관과 중공의 대한관은 보완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8. 참고자료

〈표 1〉 세계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그 전망



주 : R=로마, S=스페인, B=영국, A=미국, J=일본

- ① → ② = 중세봉건사회(R) (Pax Romana)
- ② → ③ = 근세사회(B) (Pax Britannica)
- ③ → ④ = 현대사회(A) (Pax Americana)
(Pax Nippo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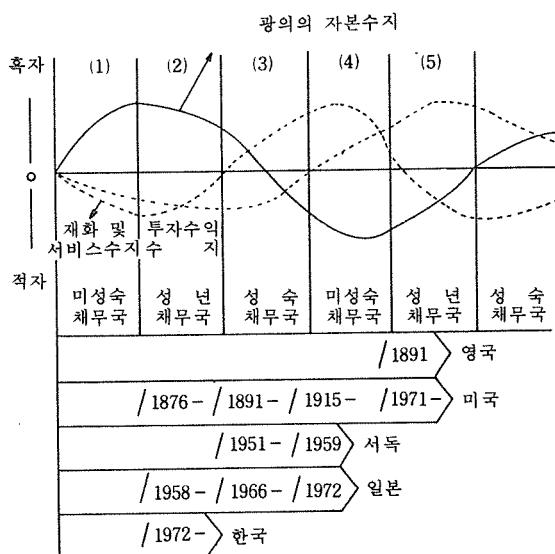
- ④ → 대륙시대 (18세기 이후)
- ⑤ → 대서양시대 (1914년 이후)
- ⑥ → 미국시대 (1945년 이후)
- ⑦ → 태평양시대 (1982년 이후)

• 20세기후반의 특징과 문제점

- ① 국제무역역류
- ② 국제금융역류
- ③ 국제경영역류

- ① OECD 실업문제
- ② OPEC 개발문제
- ③ NICs 외채문제

〈표 2〉 국제수지의 단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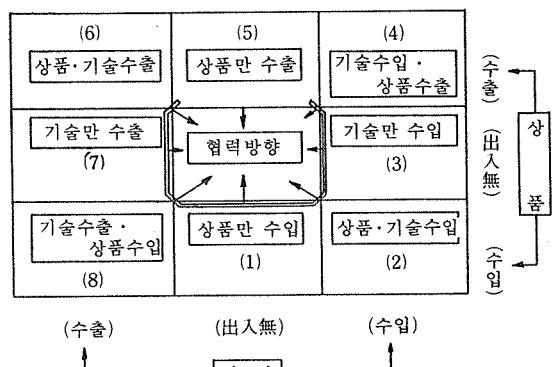
주 : 1) 재화 및 서비스수지 = 무역수지 + 무역외수지 - 투자수익수지

2) 광의의 자본수지 = 장기자본수지 + 이전수지 + 공적거래수지

3) 각국의 국제수지단계는 일반적인 것임.

자료 : 일본정보교육연구회 편, 「日本の白書」, 1885년, p. 396.

〈表 3〉 韓·美·日間 국제무역 및 기술거래와 기술수준



비교생산비
비교기술력

공업력

주 : 한국 : 제 4 단계

일본 : 제 6 단계

미국 : 제 8 단계

주 : 기술수준

① 특허등록건

② 기술부역액

③ 제조업부가치액

④ 기술제품수출액

주 : 기술개발력

① 기술수준

② 연구개발자본

③ 연구개발성과

〈表 4〉 中共의 무역구조 (主要品目別)

〈단위 : %, 億元〉

구 분	연 도	식료품·담배	공업용원료	광물·연료	중공업품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기 타	총 금 액
수	'84	14.1	7.6	23.0	14.5	-	36.0	-	580.6
	'85	15.8	8.1	25.9	9.6	3.7	36.0	0.9	809.3
출	'86 1~3月	15.9	9.4	20.3	8.6	4.2	40.1	1.5	187.5
	'84	8.4	9.4	0.5	51.2	51.1	14.9	0.3	620.4
	'85	4.0	7.8	0.4	63.1	10.3	14.2	0.2	1,257.8
입	'86 1~3月	4.7	7.7	-	63.8	8.4	14.9	0.5	284.0

註) 수출 및 수입 금액은 통관기준임.

資料 : 中国海關統計, 中国統計月報

〈表 5〉中共의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 분	년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貿易總額		148.0	260.4	293.3	378.2	403.7	393.0	407.3	497.7	592.1
(增減率)		(10.1)	(39.5)	(42.1)	(28.9)	(6.7)	(△2.7)	(3.6)	(22.2)	(19.0)
수출액(FOB)		75.9	97.5	136.6	182.7	208.9	218.2	220.0	244.1	258.0
수입액(CIF)		72.1	108.9	156.6	195.5	194.8	174.8	185.3	253.6	334.1
무역수지		3.8	△11.4	△20.1	△12.8	14.1	43.4	36.7	△9.5	△76.1

資料 : ① State Statistical Bureau, PRC, op. cit., p. 508.

② 「1985년」은 1986년 3월 25일 제 6기 全人大 제 4차 회의에서 中共首相 趙紫陽의 報告數值임.

